

광주·전남 대학 수시 경쟁률 대부분 하락

학령인구 감소로 미달 사태 우려
취업에 강한 학과는 여전히 인기
전남대 6.55대 1, 조선대 4.9대 1

교육과가 12.67대 1(3명 모집에 38명 지원)로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았으며, 자연계열에서는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가 15.83대 1(6명 모집에 95명 지원)이었다.

조선대의 수시모집 경쟁률도 4.9대 1로 지난해 5.4대 1보다 하락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일반전형 4.4대 1,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7.8대 1, 학생부종합(일반)전형 6.9대 1, 실기·실적 실기전형 4.1대 1, 군사학과전형 5.8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구분해 모집한 의예과와 치의예과의 경우 일반전형 경쟁률이 각각 24.4대 1과 47.1대 1을 기록했고,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이 각각 13.8대 1과 16.3대 1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5.65대 1로 지난해 6.5대 1보다 낮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립대학 중에서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물리치료학과가 44명 모집에 570명이 지원해 13대 1, 치위생학과는 45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해 10.4대 1, 간호학과 168명 모집에 1546명이 지원해 9.2대 1, 응급구조학과 55명 모집에 424명이 지원해 7.7대 1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4.36대 1로 지난해 5.14대 1보다 떨어졌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학생전형은 1001명 모집에 4372명이 지원해 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역학생전형은 633명 모집에 2810명이 지원해 4.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부)별로는 보건행정학과(지역학생)가 7.88대 1로 가장 높았고 간호학과(일반학생) 7.45대 1, 유아교육과(지역학생) 7.1대 1, 소방행정학과(일반학생) 7.09대 1 순이었다.

목포대는 1386명 모집에 6679명이 지원해 4.82대 1을 기록하며 전남지역 국립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동신대는 최종 경쟁률 4.27대 1로 지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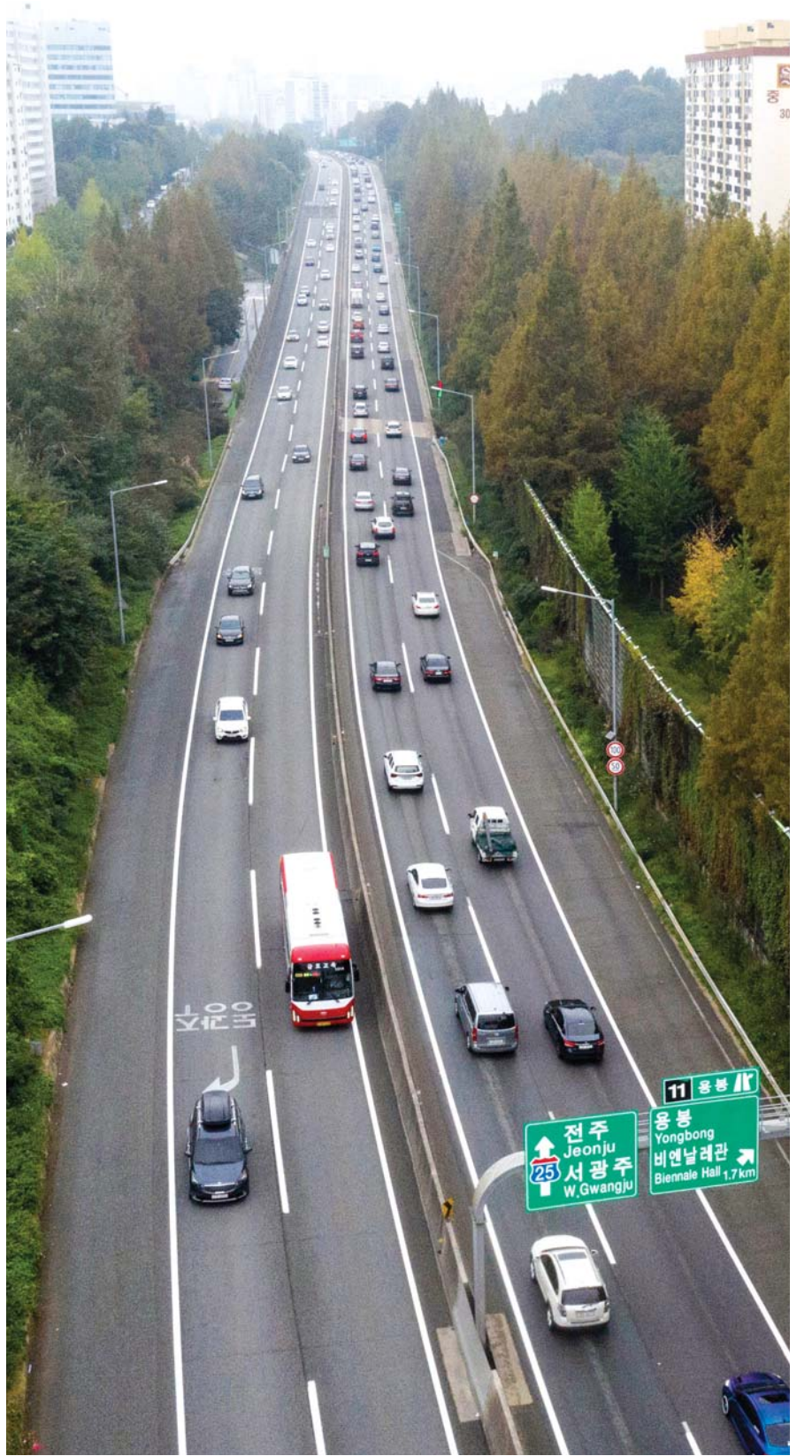
4.82대 1보다 다소 낮아진 가운데 학생부교과(일반전형)에서 한의예과가 4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각 대학은 이번 수시모집의 경쟁률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비인기 학과 등은 미달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험생 1명당 수시에서 대략 4~5개 가량 대학(과)을 지망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최종 등록 결과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며 "일부 대학과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 모집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대학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주말보다 한산한 귀경길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광주 동광주 나들목에서 바라본 호남고속도로(오른쪽이 상행선)가 평소 주말보다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유전자 찾았다

전남대·충남대 연구팀 연구
코로나 신약 개발 발판 마련

대상으로 20명의 건강한 사람과의 면역세포 변화를 비교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세균 패혈증과 밀접한 톨루사수용체(TLR)-4 하위경로의 신호분자들을 비롯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의 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여러 국가에서 보고됐지만, 국내 환자들에게서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증 환자에서는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퇴치 유전자 단백질(S100A9)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

박준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유전자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치료 및 신약 개발 연구에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종 기자 chae@

전남대 연구팀, 고수온에 강한 전복 개발

기존 전복보다 2도 높은 28도 생존
성장률 11%, 단백질 함량 12% 많아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여름철 고수온(28도)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전복을 개발했다.

전남대 이정식 수산생명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왕전복과 동근전복을 교잡해 '용봉전복'을 개발하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쳤다.

'용봉전복'은 28도의 수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정도로 고수온 내성을 가졌다. 또 기존의 양식 전복에 비해 성장률은 11%가 더 뛰어나고, 단백질 함량도 12% 더 많다.

현재 국내외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는

참전복(북방전복)은 여름철 26도 이상의 고수온기에는 폐사하는 일이 잦아 전복 양식업자들에게 큰 고민거리로 작용해 왔다.

연구 책임자인 이정식 교수는 "고수온에 강한 용봉전복 개발로 3500억원 규모의 국내 치패시장은 물론 2조 5000억원의 세계시장 석권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성과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한 다부처 공동프로젝트 'GSP(Golden Seed Project)'의 '교잡 대상종 및 교잡 신종자(속성종, 수온내성) 특성 연구'로 얻어졌다. 2019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우수성과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심리상담·춤테라피로 '코로나 블루' 극복 돕는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생상담교사연구회 운영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사와 학생들의 무기력과 우울 증상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상담교사연구회'를 운영한다.

학생상담교사연구회에는 ▲마음성장연구회(온라인 심리지원 상담 콘텐츠 개발) ▲치유프로그램개발연구회(코로나19로 고립된 학생의 관계회복) ▲춤테라피 관련 연구회 ▲코스모스연구회(코로나19로 받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 등 4팀이 꾸려졌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현장 수업, 페이스북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를 공유한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구성된 춤 테라피 관련 연구회 교사들이 모임을 가진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제공>

김철호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교사와 사회 전체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 북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재정 인센티브 1억원 받아

광주시 북구가 2년 연속 일자리 잘 만드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4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인 이번 행사에서 북구는 지자체장의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평가받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북구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손에 잡히는 일자리, 주민과 소통·협력하는 일자리'를 핵심으로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찾아가는 기업·고용 민원해결단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역대 가장 많은 1만 252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중년 일자리 ▲산입현장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산업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일자리 지키기 프로젝트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우울 막자...광주 동구, 무료심리검사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무료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 우울로 고통받는 가족 간의 심리적 안정과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도록 '무료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계속되는 집콕 생활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정신적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심리 상담, 자녀양육 태도검사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집단 상담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 우울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통한 심리적 방역 또한 세심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관 역사자료 수집

유은총동문회 및 동문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는 2021년 5월 26일에 100주년 기념관 개관에 맞춰 14만 동문들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100년사 연감 제작을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은가족 및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및 교육 발간 책자

- 학교 교사(校史), 학교 요람, 학교연혁지, 교육계획서, 학교문집, 교육활동철
- 새교육 등 교육관련 각종 잡지, 학교 신문, 교지, 학교 발행 간행물 등
-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부교재 등

기록자료

- 사진, 회화, 앨범, 영상자료, 졸업식, 입학식, 운동회 등 각종 행사 사진 및 자료
- 학교 배경의 개인 기념 사진이나 그림, 졸업 앨범 및 우승 트로피, 메달, 상장
- 학습지도안, 학급경영록, 시험지 및 답안지, 성적표, 통지표, 학교일지 등

학교 물품과 서류

- 졸업장, 수료증, 급여 봉투, 고지서, 영수증
- 학교 상징물, 교기, 교가, 교훈, 배지, 상징함, 깃발
- 각종 교구 및 기자재, 타자기, 초기형 컴퓨터, 환등기 등
- 운동회 용품, 호루라기, 매스게임 물품, 모의 수류탄 등

학생물품

- 교복, 체육복, 교련복, 이름표, 모자, 가방, 주산, 학생증, 교표, 도서관 대출증
- 도시락, 일기, 방학생활, 학급 문집, 동아리 문집 등
- 기타 자료 등

접수처

광주동성고등학교(광주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1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062)670-4532

광주동성고(광주상고), 광주여상고, 광주동성중, 광주동성여중
학교법인 유은학원 100주년 기념사업회